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시니”

■ 이종윤 원로목사

밭모سم에 죄수로 와 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섬기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떠나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있었으나 밭모سم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를 만나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가 본 그분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칭호로 알려진 인자 사상의 기원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고, 표범 같은데 머리가 넷이 있고, 뿔 열을 가진 짐승 같은데 사람의 눈을 가진 짐승을 환상으로 본 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는 환상을 보았다. 인자(人子)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라 함으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했다.

오늘날 예수님의 초상화는 12세기 무렵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상상의 산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예수님을 영감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14가지로 묘사했다. 그중 네 가지만 살펴보고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음을 확신하자.

사도가 본 예수의 눈은 불꽃같다.

불타는 눈으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연못가의 절름발이, 자기 옷을 몰래 만진 병 고침 받고 싶어하는 여인, 세 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보고 계셨다. 사도의 고통도, 우리의 모든 경험을 보고 계시고, 잘못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입의 말과 행실을 보고 계신다. 주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심판하신다.

주님의 입으로 낱선 겸이 나왔다.

성령의 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물소리같이 들려졌다. 경죄하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다. 그 음성은 과거 시상이 아닌 현재형이다. 우리 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일곱 별은 주의 종이요, 일곱 촛대는 주님의 교회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예외 없이 붙잡고 계신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으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 좌절할 이유가 없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가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그 손으로 우리도 만지고 계신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다.

긴 옷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 삼중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메시아 예수 우리 주님의 직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어 대제사장으로 대속의 기도를 해 주시고, 왕 중 왕으로 우리의 생사 회복을 주장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긴 옷을 입고 계신 주님 발 앞에 사도는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주님은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는 자라’ 요한과 함께 계시므로 그의 안전이 보장되고 내가 본 것을 받아써서 교회에 전하라 하셨다. 우리도 인자같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의 증인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이번 주일도 주일 1부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영상예배에 접속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906_sermon.jpg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해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르토티로이, 필리본, 프란소드, 수레시, 수버쓰, 알로롱, 비사누뵈드, 보다소프, 린롱, 수린준(벵골 라티사)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인(필리핀),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현(마다카스카르)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 고전 3:16-17
 ‘하나님의 성전’은 짧은 두 구절에서 무려 세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1.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룩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반어법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짓는 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이며 그의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구별된 처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집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같은 모든 복락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안식이요 거룩한 위로요 거룩한 기쁨이요 거룩한 평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거룩한 성전을 확연히 빛내는 것들이 아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막 11:17).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을 아뢰는 방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격식이 수반됩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17절)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성도의 교제가 방해받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두려운 것은 단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핍박의 와중에서도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떡을 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모일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예배의 가장 큰 맹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맺는 말
 예배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격식을 요구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본질을 감싸는 포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편리주의 발상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격식이나 형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는 일은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성도 개인의 무너짐도 거룩성 훼손입니다. 교회의 무너짐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상실한 내부의 부패와 타락과 다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나 성도 개인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상이나 아니면 정리의 대상이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허무는데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데 공헌하는 보석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서광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1:7-8...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1(시 34)...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88(88)...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3:18-23...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435(492)...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전 3:23)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57:1 인 도 자
- 찬 송 364(482)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막 8:34 인 도 자
- 설 교 ... “제자도(1) - 자기를 부인하고” ... 인터넷 영상
- 찬 송 369(487)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7:6-7 인 도 자
- 찬 송 412(469)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삿 6:11-24 설 교 자
- 설 교 “여호와 살롬” 인터넷 영상
- 합심기도 인터넷 영상
- 주기도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당회 / 9월9일(수) 오후 7시 104호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02명	294명	1,796명	305명	1,72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8/3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30일	헌 금	10,726,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찬양운영비		7,014,500
	교회학교운영비		48,400
	선 교 비		100,000
	출 판 비		1,210,000
	복리후생비		536,630
	통 신 비		270,700
	수도광열비		479,610
	차량유지비		557,200
	소모품비		379,440
	환경유지비		141,600
	수선유지비		51,700
	식당운영비		242,580
	합 계	10,726,000	92,853,3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